

## 여름철 관광 성수기 제주 방역 '비상'

최근 평균 3만명 찾아  
코로나 확산방지 총력  
입도부터 출도시까지  
안전한 휴가환경 제공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제주지역에 내국인관광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지역 코로나19 방역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제주지역 내국인관광객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방역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달들어 주말과 주중 하루 평균 3만 명의 내국인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다.

일별 입도객은 지난 1일 3만2464명, 2일 3만2316명, 3일 3만3229명, 4일 3만1335명, 5일 3만1495명 등 지난 5일간 내국인관광객은 총 16만 84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8042

제주형 다흔디배움학교  
6개교 추가... 44개교로  
도교육청 성과협약 체결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다흔디배움학교' 신규 지정이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도교육청에서 '2020년 신규 지정 제주형 자율학교(다흔디배움학교)' 6개교와 성과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6개교(가마·한천·대흘·영평·하도·하원초)가 추가되면서 도내 다흔디배움학교는 총 44개교(초 30개교·중 12개교·고 2개교)로 늘었다.

다흔디배움학교는 학생, 학부모·지역사회, 교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새로운 학교문화를 선도하는 공교육 혁신모델학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명 보다 9.7% 감소한 수치지만,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관광객 추이가 최근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점차 회복세를 맞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여름 휴가철 해외 관광객 수요가 국내인 제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방역 강화에 나선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제주도 입도 단계에서부터 출도까지 안

전한 휴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는 각 방역 접점에서의 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로 여행을 오려는 관광객들에게 안전수칙 이행을 전제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지난 5월 27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선명령 시행 이후 버스, 택시의 마스크 의무 착용사

항을 공항 내 안내방송, TV 자막방송, 영화관 영상홍보, 현수막, BIS버스정보 시스템, 재난문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렌터카 대여 전후로 세차와 방역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물놀이장을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과 해수욕장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제27회 한라환경대상 시상식이 6일 오후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려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희만 기자

## "제주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할 터"

이제 제27회 한라환경대상 시상식 환경보전의 생활화와 맑고 푸른 제주를 가꾸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일보사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제27회 한라환경대상 시상식이 6일 오후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9면  
시상식에는 부문별 수상자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대신해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변대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축사에서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고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면서 "최근 몇년 사이

관광객·인구가 급증한 영향으로 환경 수용량이 초과하면서 우려가 많은데, 제주도정은 환경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웅곤 한라일보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주인들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살면서 이런 가치를 가깝게 공감한다"며 "그러나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여러분의 작고 큰 노력들이 망각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이런 모습이 주변에 널리 알려져 자연 보호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라환경대상 수상자의 영예는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에 돌아갔

으며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도의 수상자 참석을 제한하는 등 참석자 범위를 최소화했다.

다음은 수상자 및 단체. >한라환경대상=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한라환경실천상 최우수=제주자연사랑연합회, 우수=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한라환경지킴이 최우수상 학교 부문=우도환경사랑동아리(우도중), 교사 부문=이미해(부산남도여중), 학생 중·고등 부문=문유빈(제주중앙여고 3) >한라환경 UCC 공모전 최우수상 일반 및 대학 부문=편태원, 고등 부문=양지희(제주중앙여고), 중등 부문=정영두(손곡중), 초등 부문=조서연(아라초). 이상민기자

## 차량 60만대 시대... 주차난 '가속'

100대당 87대꼴 확보 이면도로 주차장 전량  
인구·세대당 차량 보유 전국 최상위 대책 마련 시급

제주지역의 등록차량이 지난 2월을 기점으로 60만대 시대를 맞으며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제주시의 경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문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60만6379대로 5월 60만1521대보다 4858대 늘었다. 1년 전인 지난해 57만4361대에 견줘서는 3만2018대 증가했다. 역외세입차량(일명 리스차량)이 지난해 18만7570대에서 1년 새 21만3230대로 몸집을 늘렸다. 이에 따른 제주지역에서 실제 운행하는 차량은 올해 6월 기준 38만8291대에 이른다.

제주의 인구당(전국평균 0.463대) 차량보유 순위는 전국 1위다. 1명당 0.580대로 2위 전남(0.579대)과 3위 인천(0.565대)보다 앞선다. 세대당(전국평균 1.054대) 보유 순위에서는 출몰 1위를 달리던 제주(1.309대)가 인천(1.330대)에게 올해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여전히 전국

최상위권이다. 6월말 기준 제주인구는 67만1316명, 세대수는 29만 7669세대다.

이처럼 신규 등록차량 대수가 늘어나면서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제주시의 주차면은 차량대수의 87% 수준에 머물며, 서귀포시의 153%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다.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대는 물론 민간에서의 주차장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도내 주차장은 40만9456면이다. 제주시가 24만 9366면으로 제주지역의 등록차량 대수인 28만4812대보다 적다. 100대 당 87대로 나머지 13대꼴은 불법주차를 하는 셈이다. 반면 서귀포시의 주차장 면수는 16만9000대로 등록차량 대수 10만4849대보다는 많아 제주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도심 주차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알림**

**2020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한리일보는 전국 지역 대표 언론사와 공동으로 '제2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를 7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합니다.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지방 의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방 행정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지방분권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본 박람회는 전국의 지방 의회와 행정기관들이 각 지역의 의정 활동과 자치 행정을 홍보하고, 자치단체 상호 간의 정책 및 정보를 교류하며 의회와 집행 기관 간에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의정 활동 홍보관, 대한민국 지자체 행정 홍보관 외에 대한민국 유권자 및 선거 콘텐츠 특별관 및 전문가 특강 등 부대행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방 정부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에 상호 협력 및 소통을 진작시키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본 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 간: 2020년 7월 9일(목) ~ 7월 11일(토)  
>장 소: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1홀  
>주 최: 한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일보, 경북일보, 경상일보, 부산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충북일보  
>주 관: (주)한국전시산업원  
>주관방송: YTN  
>후 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산광역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 자치분권 실현!

## 주민주권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2020. 1)하였고,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국가사무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재정 확충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 제도 개선
------------------------	-----------------------------	------------------------	-------------------------	-----------------------------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www.pcad.go.kr